

개인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생애경로를 그리며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Savickas et al., 2009).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일은 생애동안 반복하여 겪는 중요한 국면이지만, 특히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취업성공과 직업적응을 위하여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변인연구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진로탐색행동은 대표적인 생애진로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진로탐색행동은 전 생애에 걸친 자기구성(self-construction)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Flum & Blustein, 2000).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고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말하며(Blustein, 1988), 탐색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 및 체험들이 개인의 내적 심리작용에 의해 깊이 통찰되는 과정과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Flum & Blustein, 2000). 진로탐색행동은 탐색의 대상에 따라 심리검사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자기탐색과, 각종 매체나 직업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직업탐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동선, 2003).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대안을 갖게 하고, 진로결정과 구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지영, 장재운, 김명언, 2005)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직업적응 및 경력성공을 이루게 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노연희, 장재운, 2005; Saks & Ashforth, 1999) 확인되고 있어 성공적인 생애진로발달을 위하여 진로탐색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을 효율적으로 또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김성남, 2005; 조규관, 장은영, 2010; 최동선, 2003), 구체적인 진로대안이 없거나, 진로계획 실천의 어려움, 전공적성의 불일치(이제경, 선혜연, 김선경, 2012) 등으로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이와 같은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밝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학습자의 태도, 가치관, 역량 등 학습자가 내적으로 보유한 심리적 특성을 말하며(Guglielmino, 1977; Oddi, 1986), 학습자의 인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와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Knowles, 1975; Merriam & Caffarella, 2007). 자기주도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는 주로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효능감,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열정, 독립성 혹은 자율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성(Guglielmino, 1977; Oddi, 1986)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자 특성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rison, 1992).

이와 같은 특성들을 지니는 자기주도성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생애진로의 핵심역량으로 논의되어 왔는데(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

엽, 2003), 가령, 조직 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자기혁신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직적응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장태원, 홍아정, 2011; 현영섭, 2010),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진로태도 성숙도와(성현우, 2010),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이처럼 개인이 자기주도성을 높게 가질 때 직업적 삶이나 미래계획, 진로개발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삶의 중요한 국면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박주연, 2013; 장은영, 2012)의 결과는 이와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것이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좀 더 정교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기주도성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자율성 수준(이지혜, 2010; 장은영, 2012; Deci & Ryan, 1985)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동기유형, 진로효능감(박고운, 이기학, 2007), 자기성장주도성(김지근, 이기학, 2011) 등의 변인들을 부분 혹은 완전 매개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신을 주도적인 학습자로 또는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도식

(self-schema)을 기반한 심리특성이 진로행동과 같은 목표추구행동(Deci & Ryan, 2000)에 좀 더 근원적인 원격 동기기제로 작용하거나(김아영, 2004) 관련 변인들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Lent, Brown과 Hackett (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개인의 진로행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기질, 성, 민족, 건강과 같은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등의 맥락변인, 그리고 학습경험, 과거 성취, 자기효능감 등을 개인의 진로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들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사회적 관계나 외적환경이 개인의 심리 내적인 요인들을 매개하여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김성남, 2005; 이득연, 2004; 정미예, 이진모, 2009; 최동선, 2003), 개인의 내적 동기변인들이 진로탐색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박주연, 2013; 이종찬, 2013; Betz & Vuyten, 1997; Blustein, 1989), 진로탐색행동은 외적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에 의해 보다 많은 부분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과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함에 있어 행동에 개인차를 발생시키는 매개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등 복합적인 심리적 작용에 의해 표출되며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인지기대, 행동의도 등 개인의 심리 내적인 요소들에 의해 수행수준이 증가되기도 하는데

(이득연, 2004; 정미예, 이진모, 2009; 최동선, 2003; Betz & Vuyten, 1997; Blustein, 1989), 이중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은 청소년 및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재적 동기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진로결정효능감이란 진로의 선택 및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과제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 신념으로서, 주로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다(Betz, Klein, & Taylor, 1996). 이 하위요인들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직업가치 등을 평가하고, 취업 및 진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진로선택과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제수행과 관련된다. 개인은 자신의 효능을 토대로 행동을 결정하며 성공적 수행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바를 실제 행위로 전이시키기 때문에(Bandura, 1997/1999), 진로과제 수행행동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진로결정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행동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탐색(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선행변인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박고운, 이기학, 2007; 이득연, 2004; 정은희, 2013), 진로결정효능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이득연, 2004), 또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이종찬, 2013), 그리고 내적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박고운, 이기학, 2007)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은 학습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 자기 동기부여를 기반

으로 하는 행동양식인 셀프리더십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이종찬, 2013; 허갑수, 변상우, 2012), 조직원의 자기주도성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경력관련 계획수립 및 실행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영섭,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진로결정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학습주체로서의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 진로결정과정의 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의해 탐색행동이 보다 더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학습몰입(learning flow)은 내재적 동기의 복합체로서(Csikszentmihalyi, 1997/2007), 학습활동이나 과제해결에 깊이 몰두하는 심리적 집중상태를 말하며, 몰입할 때 시간, 공간, 자신에 대한 자각까지 잊게 되고 몰입 후에는 충만감을 느끼는 심리특성을 의미한다(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석임복, 강이철, 2008; 이화선, 2010). 몰입이론을 주창한 Csikszentmihalyi(1990/2004)는 몰입경험이 주는 즉각적인 효과는 심리적인 충족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아를 강화하고 성장시킨다고 보았다. 즉 몰입경험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성취를 통한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충족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과 목표수준이 향상되어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려는 행동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이 개인에게 유능감과 삶

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학습몰입경험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가령, 전문대학 대학생들의 남형제작 실습수업에서의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이태정, 2004), 전공수업 중 몰입경험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김혜주, 도승이, 2009), 고등학생의 학습몰입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김영빈, 2012). 뿐만 아니라 학습몰입은 대학생의 개인·학교 적합성과 취업가능성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조윤형, 정진철, 문명, 2013) 대학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몰입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학습몰입이 진로탐색행동의 주요한 선행요인이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몰입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즉 고등학생의 메타인지 활용 정도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인지적, 정의적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이재신, 2009; 이지혜, 2010), 웹기반 컴퓨터학습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몰입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장필식, 2012) 자기주도성은 청소년 시기의 학습활동과 성취 과정에서 학습몰입의 주요 선행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몰입은 자기주도성과의 높은 관련성을 토대로 청소년 및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학습몰입은 본 연구에

서 상정한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여 몰입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의욕적이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삶의 질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이화선, 2010, 재인용), 학습몰입 경험은 이후의 학습활동들에 대하여 내적 동기로 작용하고(김진아, 박병기, 2013), 새로운 성취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자기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일상 속에서의 학습활동과 진로탐색과정이 의미 있고 활성화되기 되기 위해서는 학습몰입 경험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에서는 개인의 학습경험이 어떻게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흥미, 선택, 수행이 연계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 활동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진로흥미가 형성되고, 형성된 흥미로 인해 진로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형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을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자기주도성에서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순차적인 영향관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이 밝힌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는 보다 역동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학습몰입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경로가 유의

하거나(이태정, 2004; 정재희, 2006) 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며(김혜주, 2007), 경로의 방향 역시 진로결정효능감에서 학습몰입으로의 영향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등(주영주, 임영옥, 손현수, 2010),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영향관계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순차적인 영향관계가 어떠한지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습몰입은 학업 성적이나 학교생활적응 등 개인의 성취나 진로성숙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고,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진로결정효능감 역시 그동안 주로 진로장벽 등의 근접매락변인이나(고미나, 박재황, 2012; 김선중, 2005; 정미예, 2007), 진로결정자율성(박고운, 이기학, 2007), 셀프리더십(이종찬, 2013; 허갑수, 변상우, 2012) 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자기주도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혹은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에서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더욱이 자기주도성이 학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과 연계되어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네 변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제기된 이 네 가지 진로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그 인과적 관계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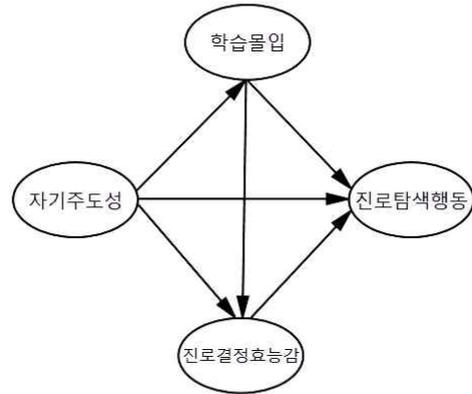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근래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학습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습몰입과, 개인의 자기참조적 사고체계를 반영하면서(Bandura, 1997/1999) 진로행동의 개인차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의 역량과 태도가 진로탐색행동을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이 두 변인이 촉매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등 5개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유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99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

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60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309명(51.2%), 여학생은 295명(48.8%)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이들 중 1학년은 67명(11.0%), 2학년은 153명(25.3%), 3학년은 187명(31.0%), 4학년은 197명(32.6%)으로서 1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학생이 504명(83.4%), 전문대학교(2년제) 학생이 100명(16.6%)으로서 4년제 대학교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측정도구

자기주도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주도성 척도는 West와 Bentley(1990)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SDRLS: self-directed learning scale)를 유귀옥(1997)이 번역한 것으로서 총 32문항이며, 이 중 일부 문항을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예: '나는 교사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수업시간에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알 수 있다' → '나는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강의시간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알 수 있다'). 척도의 측정학적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24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분산은 64.97%였고, 하위요인 각각을 학습애착(예: '나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자기확신(예: '내가 꼭 공부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나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방성('나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율·책임

(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내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이라 명명하였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효능, 적극성 및 책임감이 높고 자발적 학습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92$ 이고, 학습애착은 .90, 자기확신은 .82, 개방성은 .69, 자율책임은 .74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몰입 척도는 김아영, 탁하안과 이채희(2010)가 타당화한 성인용 학습몰입척도(총 29문항)로서, 석임복과 강이철(2008)의 연구를 토대로 통제나 주관적 역량을 반영하는 인지적 몰입(예: '나는 공부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 등)와, 집중, 그리고 학습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을 반영하는 정의적 몰입(예: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나는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다' 등)의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통제감과 집중력이 높고 학습과정과 학습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97$, 인지적 몰입은 .91, 정의적 몰입은 .96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효능감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1996)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이은진(2001)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총 25문항이며, 자기평가(예: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정보수집(예: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목표설정(예: '여러 가지 전공(진로)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진로)을 선택할 수 있다'), 진로계획(예: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제해결(예: '처음 선택한 진로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 또는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의 자기평가, 목표설정 및 계획, 문제해결 등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94$, 자기평가는 .84, 정보수집은 .81, 목표설정은 .84, 진로계획은 .86, 문제해결은 .83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탐색행동 척도는 최동선(2003)이 제작한 진로탐색행동검사 도구이다. 탐색 대상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탐색(예: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다', '부모님,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등)과 직업에 대한 탐색(예: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등)으로 구분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려는 행동 성향이 높고 각종 매체나 체험 등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을 활발히 수행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94$, 직업탐색은 .93, 자기탐색은 .8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데이터의 결측값 처리는 SPSS 18.0의 EM 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변인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검증을 하였다. 또한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모형(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χ^2 검증이나 적합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고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주환 외, 2009). 따라서 절대 적합지수인 χ^2 값 외에도 RMR, CFI, TLI(NNFI), RMSEA 지수를 종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평가기준은 χ^2 가 $p>.05$ 로서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RMR은 .05 이하,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의 경우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 .10~.10이면 보통의 적합도이며 .10보다 크면 수용하기 어려운 나쁜 적합도(Browne & Cudeck, 1993)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으며, 추정된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다중매개효과의 개별매개효과인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생성하여 두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또한 두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절차와 연구윤리의 확보

설문기간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으며,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 및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문 실시 전에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관련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및 비밀보장 관련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검증

먼저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진로결정효능감($M=4.188, SD=.676$)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학습몰입($M=3.356, SD=.971$)이 다른 변인에 비해 다소 낮았다. 남자의 경우는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 3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나, 여자의 경우 학습몰입에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잠재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변인	구분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성별	남자($N=309$)	4.254	.665	3.705	.943	4.257	.715	3.947	.799
	여자($N=295$)	3.940	.584	2.991	.860	4.115	.625	3.579	.807
	전체($N=604$)	4.101	.646	3.356	.971	4.188	.676	3.768	.823

서 다소 낮은 평균점수($M=2.991$, $SD=.860$)를 나타냈다(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모든 변인들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55 \sim .860$, $p < .01$). 모수 추정방법을 결정

하기 위하여 총 13개 측정변인들에 대한 다변인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 이하여야 하고,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Kline, 2005)을 적용하였을 때 자료가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행렬표 및 사례수,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기 주도성	1													
	2	.569**	1											
	3	.585**	.646**	1										
	4	.531**	.468**	.494**	1									
학습 몰입	5	.572**	.462**	.493**	.382**	1								
	6	.513**	.439**	.472**	.353**	.860**	1							
	7	.527**	.468**	.468**	.501**	.340**	.255**	1						
진로 결정 효능감	8	.476**	.444**	.452**	.426**	.338**	.294**	.678**	1					
	9	.484**	.420**	.438**	.452**	.322**	.273**	.689**	.675**	1				
	10	.575**	.499**	.514**	.456**	.486**	.447**	.653**	.704**	.669**	1			
	11	.401**	.439**	.394**	.407**	.375**	.365**	.555**	.534**	.522**	.584**	1		
진로탐색 행동	12	.497**	.461**	.471**	.312**	.522**	.517**	.454**	.555**	.474**	.626**	.437**	1	
	13	.457**	.498**	.493**	.397**	.443**	.422**	.500**	.503**	.475**	.584**	.437**	.709**	1
사례수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평균	4.027	4.153	4.087	4.136	3.436	3.276	4.188	4.223	4.329	4.093	4.107	3.574	3.962	
표준편차	.812	.799	.767	.797	.970	1.044	.749	.785	.808	.854	.842	.946	.835	
왜도	-.085	-.109	.085	-.132	-.007	.041	.185	.151	.052	.049	.113	-.138	-.141	
첨도	-.086	-.087	-.069	.023	.066	-.294	-.094	.041	-.370	-.188	-.166	.114	.184	

** $p < .01$

1: 자기확신 2: 학습에착 3: 개방성 4: 자율책임 5: 인지몰입 6: 정의몰입 7: 자기평가 8: 정보수집 9: 목표설정 10: 진로계획 11: 문제해결 12: 직업탐색 13: 자기탐색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59, N=604)=255.290, p<.001, RMR=.029, TLI=.949, CFI=.961, RMSEA=.074(.065\sim.084)$ 로서, χ^2 값에 의한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χ^2 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전체적인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성은 학습몰입과 $r=.68$, 진로결정효능감과 $.78$, 진로탐색행동과 $.72$ 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학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과 $r=.48$, 진로탐색행동과 $.61$ 이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r=.77$ 로 나타났다.

즉 잠재변인들 간 상관성이 $.48\sim.78$ 로서 잠재변인의 변별타당성에 대한 일반적 수용 기준치인 $.40\sim.85$ 의 범위(문수백, 2009) 안에 있고 잠재변인 간 상관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 변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측정변인들과 해당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고($CR=16.03\sim 28.60, p<.001$), 표준화요인부하량이 $.65\sim.95$ 로서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 없이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초기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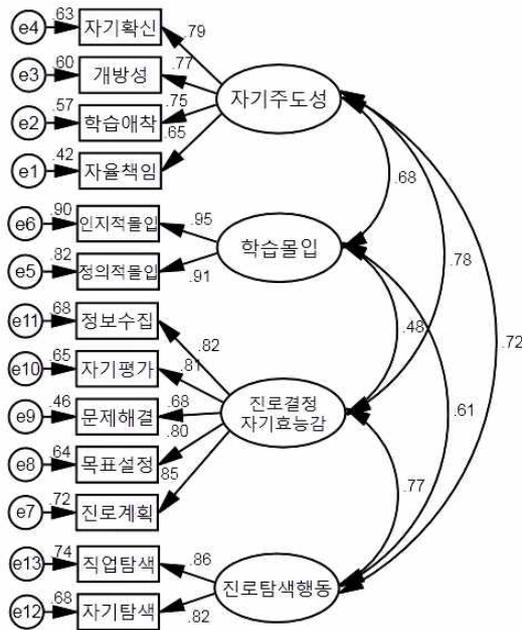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3. 초기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자기주도성 → 진로탐색행동	.118	.093	.104	1.133
학습몰입 → 진로탐색행동	.248	.281	.045	5.560***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탐색행동	.627	.559	.074	8.492***
자기주도성 → 학습몰입	.977	.681	.062	15.693***
자기주도성 → 진로결정효능감	.951	.842	.072	13.211***
학습몰입 → 진로결정효능감	-.074	-.093	.041	-1.794

*** $p < .001$

구모형의 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59, N=604)=255.290, p < .001, RMR=.029, TLI=.949, CFI=.961, RMSEA=.074(.065 \sim .083)$ 로서, χ^2 값에 의한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χ^2 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

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모수치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3), (그림 3).

초기 구조모형의 직접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자기주도성은 학습몰입($\beta=.681, CR=15.693, p < .001$)과 진로결정효능감($\beta=.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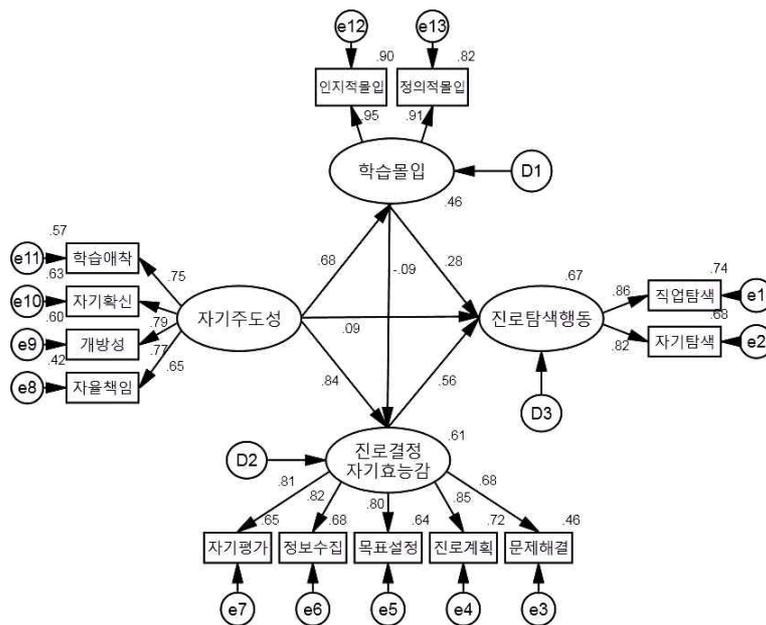


그림 3. 초기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CR=13.211, $p < .001$)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탐색행동에의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93$, CR=1.133, $p > .05$). 또한 학습몰입($\beta = .281$, CR=5.560, $p < .001$)과 진로결정효능감($\beta = .559$, CR=8.492, $p < .001$)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습몰입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93$, CR=-1.794, $p > .05$).

따라서 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적합도나 간명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고자, 자기주도성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학습몰입에서 진로결정효능감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삭제시킨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그림 4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수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1, N=604)=260.178$, $p < .001$, RMR=.030, TLI=.950, CFI=.961, RMSEA=.074(.065 ~ .083)로서,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은 위계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모형의 χ^2 값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직접 비교하였다. χ^2 검증 결과, $\Delta\chi^2(2, N=604)=4.888$, $p > .05$ 로서 임계치 5.99($=\chi^2 .05(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초기 구조모형보다 간명성 가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모든 경로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beta = .310 \sim .772$, CR=7.867 ~ 16.965, $p < .001$).

두 매개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간 직·간접적인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모형 내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다중상관자승(SMC, R^2)을 통해 확인하였으며(표 4), 최종적인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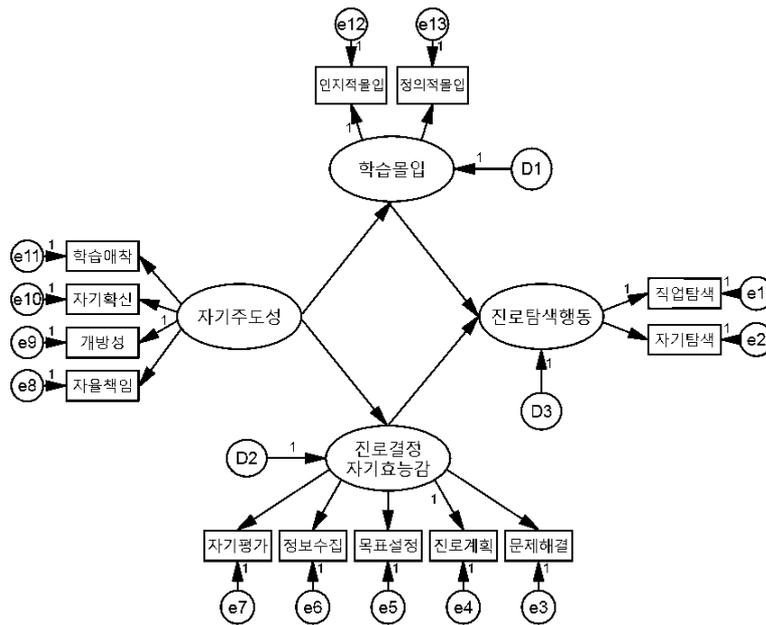


그림 4. 수정된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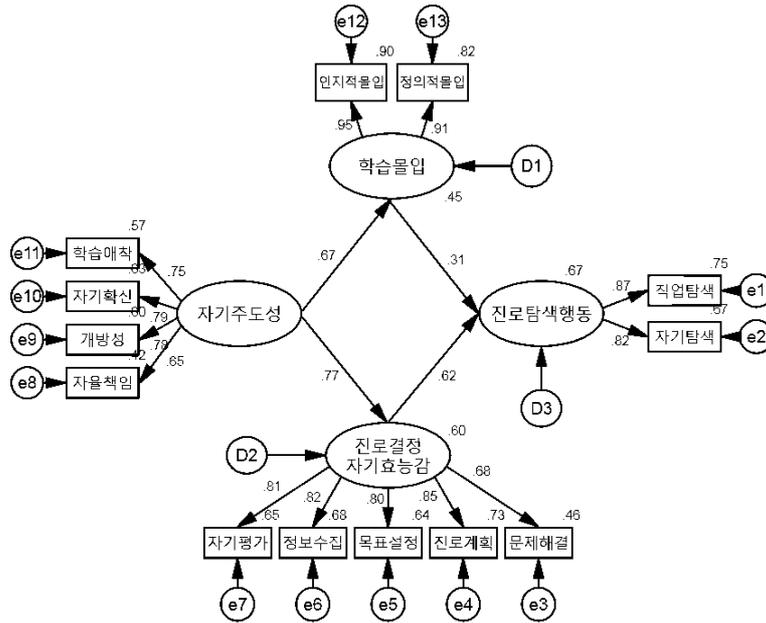


그림 5.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먼저, 다중상관지수(SMC)을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성은 학습몰입을 44.9% 설명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을 59.6% 설명하며,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자기주도성은 진로탐색행동을 6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40 이상

을 상회하므로 종속변인들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또한 자기주도성에서 진로탐색행동으로의 전체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873으로서 95% 신뢰구간(.781-.967)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표 4. 최종 구조모형의 직·간접·총 효과 분석 및 다중상관지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SMC
종속변인	독립변인				
학습몰입	← 자기주도성	.670**		.670	.44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자기주도성	.772**		.772	.596
진로탐색행동	← 학습몰입	.310**		.310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효능감	.615**		.615	.672
진로탐색행동	← 자기주도성		.683** (.873)	.683 (.873)	

** $p < .01$, 괄호는 비표준화 경로계수

다. 즉, 자기주도성은 학습몰입 수준과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을 높였으며,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수행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자기주도성 그 자체만으로는 진로탐색행동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으며 BC(Bias-corrected) 신뢰구간 방법으로(홍세희, 2010)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 검증방법인 Sobel검증은 두 경로 곱의 표본분포가 정규분포임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두 경로 곱의 표본분포는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배병렬, 2011). 특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존재할 경우에 Sobel 매크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허원무, 2013), 매개효과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Sobel 검증법 보다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의한 두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매개경로 각각에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였으며,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의 값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표 5).

표 5에서, 학습몰입(B=.266)과 진로결정효능감(B=.607)의 매개효과는 p값이 각각 .001이고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자기주도성→학습몰입→진로탐색행동의 경로, 그리고 자기주도성→진로결정효능감→진로탐색행동의 경로에서 두 개별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도성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이 촉진되며, 자기주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습몰입에서 진로결정효능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beta = -.093$, $CR = -1.794$, $p > .05$), 자기주도성→학습몰입→진로결정효능감→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순차적인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경로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므로 특정간접효과 간 차이(B=.341)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형된 팬텀변수(배병렬, 2011)를 설정하여 적용한 결과, p값이 .001

표 5. 최종 모형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95% 신뢰구간 (Lower-Upper)	P
자기주도성 → 학습몰입 → 진로탐색행동	.266	.044	.182-.362	.001
자기주도성 →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탐색행동	.607	.052	.512-.714	.001

이고 95% 신뢰구간(.187~.507)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도성에서 진로탐색행동으로의 인과적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학습몰입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이 어떠한 영향관계를 이루는지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구조를 규명하고,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의 수행수준은 자기주도성보다 학습몰입경험이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서의 유능감 지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먼저, 학습몰입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대학생이 학습몰입을 통해 몰입대상 혹은 몰입영역에 대한 숙달감과 유능감을 지각하고 몰입내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이 형성됨으로써 진로탐색의 목표행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여 몰입을 많이 경험할수록 의욕적이고 자긍심이 강하고 희망적인 미래관을 갖는다는

주장(Csikszentmihalyi, 1999/2007)과, 진로태도성숙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성을 밝힌 선행연구(김영빈, 2012; 김혜주, 도승이, 2009; 이태정, 2004)를 지지하는 것이다.

몰입경험은 자기충족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몰입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어 활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Csikszentmihalyi, 1997/2007),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성취와 유능감을 제공한다(Csikszentmihalyi, 1990/2004). 특히 고차적 학습활동에서의 몰입경험은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형성·유지시켜줌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김아영 등, 2010; 석임복, 강이철, 200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과정을 이론화한 김진아와 박병기(2013)는 학습몰입경험이 학습지속력과 학습조성능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성취감과 자긍심, 유능감과 같은 학습기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학습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대학생의 학습몰입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몰입 내용과 관련된 진로영역과 목표 수준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입경험은 인식의 차원이 아닌 실제의 삶과 연결된 경험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김창대, 2002), 학습몰입을 통해 체험된 긍정적인 정서와 역량감이 자신의 미래상황과 진로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친 영향은, 대학생들이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구체적인 진로과제 수

행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탐색행동 혹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효능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박고운, 이기학, 2007; 이득연, 2004; 이종찬, 2013; 정은희, 2013)와 일치하는 것이다. Bandura(1997/1999)는 자기효능감이 상황적 조건·맥락이 배제된 일반적인 신념체계라기보다 특정 상황에 국한된 행동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작용되는 상황 특수적인 (situation-specific)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탐색과 관련된 특정행동인 진로탐색행동은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일반적인 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보다 상황 특수적인 진로결정효능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상황 특수적인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근접동기로 작용함으로써(김아영, 2004)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수행 과정에서 자신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으로써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은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과 책임성, 개방성,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높게 가지는 것이 학습상황에서의 몰입 경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서도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계획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메타인지 전략과, 자발적 참여나 목표유지와 같은 동기적 요인,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조절이나 환경통제와 같은 행동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되는 다면적인 속성을 지닌다(권성연, 강명희, 2003). 따라서 자기주도성이 학습몰입에 미친 영향은,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인지·동기·행동적 요소가 학습의 효율성과 수행력을 높임으로써 높은 수준의 학습몰입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선행연구(이재신, 2009; 이지혜, 2010; 장필식, 2012)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이 성적이나 평가, 취업압박 등에 의한 외적 통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자기주도학습자의 높은 내적 동기와 자기조절력에 의해(Deci & Ryan, 2000; Guglielmino, 1977), 학습활동의 가치나 의미가 내면화되고 그 결과 학습상황에서 몰입상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셀프리더십 등의 행동양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종찬, 2013; 허갑수, 변상우, 2012; 현영섭, 2010)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며 학습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선택행동의 주체가 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Merriam & Caffarella, 2007), 이러한 특성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목표행동을 계획·실행하려는 의지와 높은 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행연구(현영섭, 2010)에서 조직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조직원이 구체적인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새로운 경력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등, 경력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는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습몰입에 의해 완전 매개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주도성의 간접효과는 학습몰입을 매개하는 경로보다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하는 경로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Csikszentmihalyi(1990)는 자기 스스로 최적과제(optimal challenges)에 도전하여 자신의 최대역량을 실험해 보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유능성의 욕구가 강하며 유능성 욕구에 기초한 숙달지향적 행동이 다양한 몰입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Bassi & Delle Fave, 2011, 재인용). 또 몰입을 촉진하는 자기목적적 성격(autotelic personality) 특성을 지닌 사람은 독립성이 강하여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Csikszentmihalyi, 1997/2007). 이처럼 자율과 유능성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기목적적 성격 소유자는 일상생활에서 몰입추구 성향이 높고, 보상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려는 내적 동기과,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지하려는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Moneta & Csikszentmihalyi, 1996), 이러한 자기목적적 성격은 자기확신, 자율·책임, 학습애착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자기주도성과 개념적으로 매우 밀접한 근접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기주도성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를 갖추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학습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깊이 몰입할 수 있으며, 몰입과정에서 지각된 유능감이 동기화되어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의 진로탐색행동이 보다 활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능성을 발견하고 지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습경험이 선행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몰입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자기통제적인 심리특성을 반영하며 학습자의 자기책임성이 자기주도성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볼 때(Stockdale & Brockett, 2011), 자기주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높은 자기통제 및 책임지향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의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을 반증해 준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선택 및 결정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능력 체계로서,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시스템을 통해 개선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간접효과의 차이검증을 통해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학습몰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킴에 있어 학습몰입과정에서의 유능감과 만족감 지각, 그리고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 대한 효

능감이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이와 같은 동기적 작용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를 높임으로써 발현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진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만큼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진로탐색을 위한 과업들은 단순히 학점관리나 취업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넘어, 현재의 삶을 주도하고 개인의 고유한 생애진로를 구축해 나가는 능동적인 태도이자 지속가능한 진로역량 함양의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을 기초로 한 진로역량강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Bandura(1997/1999)는 학업수행과 진로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경험이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효능감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학습활동 및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유능감 지각이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진로탐색의 과정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로결정효능감의 증진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생의 진로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학생 개개인의 학습역량과 잠재적 진로대안을 고려한 개별화된 조력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몰입경험은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면서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습몰입경험의 기회와 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몰입과정에서 체험되는 통제감이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의 근간을 이룸으로써 대학생들의 '의미 있는 삶'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Hektner(1996)는 2년의 시차를 둔 종단적 연구결과, 2년 동안 몰입의 빈도가 크게 증가한 약 40%의 청소년들이 TV시청과 같은 수동적 여가활동이 줄어든 반면, 공부와 능동적 여가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몰입경험이 감소한 청소년에 비해 집중력, 자긍심, 적극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몰입경험과 삶의 질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몰입경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과 진로, 그리고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함으로써(오현숙, 2008; 이민희, 정태연, 2008) 대학생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생애진로과정을 총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졸업 후 취업의 질이나 시간경과에 따른 변인들 간 관계성 등을 분석한다면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학습몰입에서 진로결정효능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학습활동에서의 몰입경험은 진로선택 및 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전공수업에서의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결정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김혜주, 2007)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학생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명확한 진로선택 및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Lent 등 (1994)은 성별, 연령(학년), 건강 등의 개인특성이나, 기회의 제한, 진로장벽, 부족한 사회지지 등의 근접맥락변인들에 의해 진로흥미가 진로선택과 수행으로 연계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다루어진 대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 특성(4년제, 2년제) 등 개인특성이나 그 외 맥락적 배경들이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방법(예: 다집단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인과적 관계구조를 규명하고,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특성이 대학생의 학습활동과 진로결정과정 및 진로탐색과 같은 삶의 주요 국면으로 적용되는 심리적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학습몰입경험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발로가 대학생의 진로대안을 찾는 주요 연결점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은 대학생 스스로 진로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자기성찰로서의 의미가 크며,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 나가는 체계적인 노력의 과정들이 능동적인 생애진로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미나, 박재황 (2012).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년차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권성연, 강명희 (2003).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구성요인의 규명. *교육학연구*, 41(3), 239-27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남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성인용 학습몰입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4(1), 29-59.
- 김영빈 (2012). 고등학생의 학습몰입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진아, 박병기 (2013). 학습몰입과정의 이론

- 개발 및 확인: 근거이론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순차적 혼합연구. *교육심리연구*, 27(1), 241-262.
- 김창대 (2002). 몰입 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10(1), 5-30.
- 김혜주 (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 도승이 (200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중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1(2), 85-99.
- 노연희, 장재운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4), 23-43.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0.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주연 (2013).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석임복, 강이철 (2008). Csikszentmihalyi의 몰입 요소에 근거한 학습몰입척도의 다차원적, 위계적 요인모델 검증. *교육공학연구*, 24(3), 187-208.
- 성현우 (2010). 평생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진로태도성숙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학연구*. 17(11), 263-288.
- 오현숙 (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망,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4), 19-37.
- 유귀옥 (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 심리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진로결정 수준별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한 학습동기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77-99.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No.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은주 (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신 (2009). 고등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77-295.

- 이제경, 선혜연,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장재운, 김명언 (2005). 대학 4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23.
-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정 (2004).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 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선 (2010). 학습플로우경험의 증진방안 연구: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과 플로우 채널 탐색을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태원, 홍아정 (2011).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흡수능력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2(2), 17-34.
- 장필식 (2012). 몰입경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인터넷 중독이 웹기반 컴퓨터교육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1), 293-300.
- 정미예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 진로신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예, 이진모 (2009).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예측모형. *청소년학연구*, 16(10), 125-147.
- 정은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희 (2006). 특성화고 학생의 몰입특성과 진로 결정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관, 장은영 (2010). 대학생의 내·외 동기, 전공몰입, 지연행동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211-227.
- 조윤희, 정진철, 문명 (2013).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3), 749-780.
- 주영주, 임영욱, 손현수 (20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제가치의 학습몰입, 교과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예측.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01-122.
-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의과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4), 161-177.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갑수, 변상우 (2012). 셀프리더십이 목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영정보연구*, 31(1), 23-44.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방법의 최근 트

- 랜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단순, 다중, 이중매개효과 분석방법.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 현영섭 (2010). 경력정체와 경력계획 간의 관계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HRD연구*, 12(2), 45-65.
- 홍세희 (2010).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8. S & M 리서치 그룹.
- Anderson, J. C.,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41-42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7년 원저발간)
- Bassi, M., & Delle Fave, M. (2011). Optimal experience self-determination at school: Joining perspectives. *Motiv Emot* 36, 425-43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ustein, D. 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e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345-357.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eja, L., & Navarro, J. (2009). Dynamics of flow: A nonlinear perspective. *J Happiness Study*, 10, 665-684. DOI 10.1007/s10902-008-9113-6.
- Csikszentmihalyi, M. (2004). *Flow.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최인수 역). 서울: 한울림. (1990 원저발간).
- Csikszentmihalyi, M. (2007). *Finding Flow.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 역). 서울: 해냄. (1997 원저발간).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 Scale: Self 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 Garrison, R. D. (1992). Critical think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adult education: An

- analysis of responsibility and control issues. *Adult Education Quarterly*, 42(3), 136-148.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Hektner, J. M. (1996). Exploring optimal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NY: Association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Merriam, S. B., & Caffarella, R. S. (2007). *Learning in adulthood*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oneta, G., & Csikszentmihalyi, M. (1996). The effect of perceived challenges and skills on the quality of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64, 275-310.
-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02). *The concept of flow*. In Snyder, C. R., & Lopez, S. J.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89-1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ddi, L. F.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identif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3(2), 10-21.
- Saks, A. M., & Ashforth, B. B.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35-349.
- Savickas, M. L., Nota, L., Rossie,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 van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39-250.
- Stockdale, S. L., & Brockett, R. G. (2011). Development of the PRO-SDLS: A measure of self-direction in learning based o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61(2), 161-180.
- Tucker, L. R., & Lewis, C. (1973). The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est, R. F., & Bentley, E. L. (1990).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In H. B. Long & associates (Eds.),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pp. 157-180).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논문 투고일 : 2014. 09. 29
1 차 심사일 : 2014. 10. 13
게재 확정일 : 2014. 11. 27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Myung-Sook Kang

Eun-Ryoung Bang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Welfare,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604 undergraduate stud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owever, self-directedness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direct impacts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econd, self-directedness was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inally,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perfec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onsidering the size of the specific indirect effect,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was relatively larger than thos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to increas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ere made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phantom variables